우리나라 고대사 撰園史話 ㉖

(규원사화)

▣ 一沙權正孝

(한국인재개발원 회장·애국운동연합고문 옮김)

(지난호에 이어)

동방삭이 《신이경(神異經)》을 지으며 [공손히 앉아 서로를 거스러지 않고 서로 칭찬할 뿐 서로를 헐뜯지 않으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면 목숨을 바쳐 이를 구해 주니, 이름하여 '선인(善人)'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어질고도 또한 용감하며, 공손하고도 또한 굳세며, 아름다움을 공경하면서도 망령된 말은 하지 않으니, 참된 사람으로서의 미덕을 모두 갖추고 강인함과 유순함의 좋은 점을 두루 겸비한 것이 된다. 내가 이러한 까닭에 동이인이 됨을 자랑하는 것이다.

《尙書·堯典》曰: [分命羲仲, 宅 夷, 曰暘谷.] 禹貢曰: [海(垶)[岱]惟靑州, 夷旣.] 則是, 東人之占(居)[據]於海(垶)[岱]之間也. 冀州有皮服之島夷, 則是, 東人自渤海西北諸島, 遷居冀州近海之地也. 揚州有卉服之島夷, 則是, 東人自揚州印諸島, 徙居乎江淮之間也. 更有, 作牧之萊夷, 商 珠 鐵縞之淮夷, 則是, 又東人之相地審勢, 應便營生之一端也. 上古, 人心素樸, 雖異族隣處, 非非常之際, 則必各守其業, 不甚相侵而互觀其勢, 若强弱懸殊而治亂相反, 則必生征戰之端. 此, [屹]達遣兵岐, 勿理建侯殷地也. 余, 於是乎, 歎上古我先民之武勇也.

《상서》의 <요전(堯典)>에 이르기를 [따로 희중(羲仲)에게 명하여 우이(夷)

의 땅에 머물며 다스리게 하니 그 곳이 바로 양곡(暘谷)이다]라 하였으며, <우공(禹貢)>에 이르기를 [해대(海岱)는 바로 청주(靑州)인데 우이(夷)가 이미 그 곳을 다스렸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곧 동방의 사람들이 해대 사이의 땅을 차지하여 살았다는 것이다.

기주(冀州)에는 가죽 옷을 입은 도이(島夷)가 있었는데, 이는 곧 동방의 사람들이 발해 서북의 뭇 섬으로부터 기주 바닷가의 땅으로 옮겨가서 거처한 것을 말한다. 양주(揚州)에는 풀 옷을 입은 도이(島夷)가 있었는데, 이는 곧 동방의 사람들이 양주 동쪽의 뭇 섬으로부터 강회 사이의 땅으로 옮겨가 거처한 것을 말한다. 또한 목축을 하는 래이(萊夷)와 진주나 비단 명주 등을 거래하는 회이(淮夷)가 있었는데, 이는 또한 동방의 사람들이 양편 지역의 형세를 살펴 가며 편한 곳을 따라 삶을 꾸려 가던 한 모습이다.

상고 시대에는 인심이 소박하여 비록 다른 종족이 이웃하여 있어도 비상시가 아니면 반드시 자기들의 생업을 지키며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그 형세를 보고 있다가, 만약 힘의 균형이 두드러지게 차이나거나 정치가 어지러워 반목하게 되면 곧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는 실마리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흘달 임금이 군사를 빈·기로 보내고, 물리 임금이 은나라 땅에 제후를 세운 것 등이다. 내가 이러한 까닭에 상고 시대 우리 선민들의 용맹스러운 무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幸無偏, 技不專, 故天下之物, 無獨享其安而專擅其威者也. 何以知其然耶? 夫! 瓜牙者, 虎 豹之幸也, 而牛 鹿之不幸也, 頭角者, 牛 鹿之幸也, 而虎 豹之禍也. 之捷, 一(枝)[技]也, 而鼠 雀之迅, 亦一(枝)[技]也. 鷹之擊, 固所難避, 而密林深竇, 可藏鳥 鼠. 鴻(雁)[ ] 鳧鴨, 旣無銳爪利嘴, 則或高飛遠翔以避 敵, 或迅飛淵潛, 圖脫刑禍. 鶴之嘴, (特)[恃]長誇銳, 則蛇藏穴, 沒泥, 蟹入孔, 蛤掩甲. 此, 乃鷹 鶴之屬, 各有一(枝)[技]一幸(也), 而鳥 鼠鴨 蛇蟹 蛤之類, 亦各有一(枝)[技]一幸[也]. 且夫, 蛇鈍於回轉, 則蛙 鼠之幸也, 豺 狼無攀木之能, 則猿 之幸也. 斷而能生, 則 蛭之幸也, 全身毒毛, 則夏( )[蟲]之幸也. 及若蜂 之有, 蟾之吐液, 龜鼈之縮首, ( )[ ]之脆尾, 皆於採餌防敵, 禦侮逃命, 莫不爲一(枝)[技]一幸也. 於是焉, 以虎豹之强而, 不免轉逐之勞 飢渴之苦, 牛鹿之柔而, 亦得保殖之幸 眠 之樂. 其他, (猫)[ ] 鷹鶴之屬之爲强, 鼠 雀 鴻 鳧 鴨之屬之爲弱, 罔或不然. 天下豈有, 不勞之功 無難之安耶?

행운은 치우침이 없고 재주는 독점되지 않는 까닭에 천하의 만물 가운데 홀로 편안함을 누리고 그 위세로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하는 것은 없다. 어찌 그러함을 아는가?

(다음호에 계속)

■ 역사기행

소설의 독특한 영역을 개척한 김유정(金裕貞) 문학촌을 찾아서

▣ 향촌 권 오 창 (본원 자문위원)

김유정의 문학촌은 춘천시 신동면 증리(실례마을)에 조성되어 있다. 지금은 경춘선 김유정 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역에서 300미터 거리 언덕 산밑에 김유정의 생가와 문학관이 건립되어 있다. 그런데 요사이는 춘천시와 다른 기관 단체에서 많은 협력으로 춘천시의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감각과 명승관광지 복학개발로 계획된 실례마을 문학촌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경춘선 열차의 시간단축과 정거장을 현대화 하였고 역전 광장과 마을 입구로부터 도로의 정비와 다락논을 메우고 수십 칸의 목재 한식 초가를 지어 볏짚 이엉을 덮어서 산촌 부락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먹거리촌도 요소요소에 옛 당시 마을길 기준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그 때 그 시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김유정이 코다리 찌개를 먹던 주막터도 있고 김유정이 설립한 금병의숙이라든지 김유정이 직접 심은 느티나무도 거목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김유정(1908-1937)에 대하여 조금은 알아보자. 김유정을 그곳 실례마을에서 청풍 김씨 김춘식과 청송 심씨 사이에 2남6녀 자녀 가운데 일곱째로 태어났다. 그러나 조실부모하였다. 그의 나이가 일곱살에 어머니를 아홉살에 아버지를 사별하게 된다. 그의 가족은 그가 유아기 때에

서울 종로에 이사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울 재동 공립보통학교를 나와 휘문 고보에 입학 졸업하였고 1930년 연희 전문 문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에 경북 선산 출신 노래소리를 잘하여 당대의 명창의 반열에 선 박녹주를 짝사랑하고 구애작전을 펼쳤으나 그녀의 거절로 허사로 돌아가고 대학공부에는 잦은 결강으로 대학에서 제적을 당하였다. 그래서 그는 졸지에 대학을 중퇴하게 되었고 실연이라는 마음의 상처만을 남기고 귀향길에 오른다.

그때는 이미 일제강점기 중반기에 접어들어 식민지수탈에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그는 이 암울한 시대에 실례마을에 금병의숙을 지어 야학활동으로 농촌계몽운동을 2년 동안 전개하게 된다. 그러한 연유로 고향의 궁핍한 농촌실태와 희망이 없는 마을주민들의 온갖 이야기를 실제로 체험하는 바탕이 되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체 1933년 다시 서울로 올라 간다. 그리하여 그는 당시 농촌과 도시서민들의 생활을 중심소재로 한 인간상을 묘사하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 해 잡지 "제일선"지에 <산골나그네>와 "신여성"지에 <총각과 맹꽁이>를 발표한다. 1935년에는 조선일보 신춘문예 현상모집에 <소낙비>가 1등 당선된다. 또한 <노다지>가 조선 중앙일보에 가작 입선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성한 작품활동이 계속된다. 당시 1930년대 초 경향파 문학을 배격하는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문예운동인 단체인 9인회를 1933년에 조직하여 문단활동을 펼쳤다. 그 문인들은 조용만, 유치진, 김기림, 이태준, 이무영, 이상, 정지용, 박태원, 김유정이다. 그후 몇 회에 걸쳐 동인지를 내고 해체하였다.

그는 등단 이후 폐결핵과 치질이 악화되는 병고에 시달린다. 그러면서도 30여 편의 단편소설을 썼는데 남이 따라갈 수 없는 언어감각을 구사하고 독자들에게 독특한 토속적인 체취를 풍기는 감동을 불어 일으킨다. 그의 작품목록을 발표연대순으로 나열하여 보면 산골나그네, 총각과 맹꽁이, 소낙비, 노다지, 금따는 콩밭, 금, 떡, 만무방, 산골, 솥, 홍길동전, 봄봄, 안해, 심청, 봄과 따라지, 가을, 두꺼비, 봄밤, 이런 음악회, 동백꽃, 야앵, 옥토끼, 생의 반여, 정조, 슬픈 이야기, 따라지, 땡볕, 연기, 정분, 두포전, 형, 애기 등의 작품이다.

그의 작품 동백꽃은 우리나라 남도 해변에서나 섬에서 볼 수 있는 꽃잎은 적색이고 꽃수술은 노란 꽃가루가 붙은 상록수 동백꽃이 아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생강나무 꽃을 동백꽃 혹은 산동백이라고 부른다. 그의 작품에서는 노란 동백꽃으로 표현한다. 또한 산골나그네 작품에서 국수는 금방 막 바로 뽑은 메밀 막국수를 말한다. 그는 우리 문학사에서 뛰어난 이야기 꾼으로 독특한 영역을 개척하였고, 순수문예의 서정적인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1937년 실례마을 다섯째 누이 유흥의 과수원집 토방에서 투병생활을 하였으나 병이 악화되어 1937년 3월 29일 세상을 떠났다. 그의 생가는 입 구자 형태로 집을 지었고 초가이엉을 덮었다. 그의 조부 김익찬이 그 집을 짓고 일제강점기 춘천지방의 의병활동 배후인물로서 재정지원을 하였다고 하며 실례마을 땅이 거의 그의 소유였다고 한다. 초가로 이은 것은 못사는 주위사람들을 의식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그의 현명한 판단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은 생가와 문학관 사이에 두루마기를 입고 책을 펼쳐서 든 서 있는 모습의 김유정 동상이 있다. 그리고 정원에는 그의 좌상이 2 개나 있다. 김유정 기념전시관은 와가단층으로 내부는 김유정과 관련되는 테마별로 전시되고 그 내용은 김유정의 생애, 김유정의 연인들, 김유정의 작품집들, 사진으로 보는 김유정문학촌의 어제와 오늘, 박녹주의 판소리음반과 축음기, 김유정연구 전서와 논문, 일제시대 담배 희연, 봄봄 디오라마, 작품이 발표된 잡지, 작가사진 저서, 김유정의 마지막 편지, 홍보영상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김유정을 재조명하는 작업이며 기록된 역사물이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박녹주의 판소리 음반의 노랫소리가 관람자의 귓전을 울린다. 김유정이 박녹주에게 실연당한 그의 노랫소리는 외래방문객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지 궁금하다.

김유정의 문학의 산실 실례마을 실례이야기길(5.2Km)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금병산(고 652m)에 둘러싸인 떡시루 같다고 하여 실례마을이고 그 길이 실례길이다. 실례마을은 김유정 작품 12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제 있었던 일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례길은 지금 김유정문학촌의 일원 산책로로 인기가 높다. 그 길의 16코스를 알아보면 1)들병이들 넘어오던 눈웃음길 2)금병산 아기장수 전설길 3)점순이가 나를 보고 꼬시던 동백숲길 4)덕돌이가 장가가던 신바람길 5)산국농장 금병도원길 6)복만이가 계약서 쓰고 아내 팔아먹던 고개길 7)춘호 처가 맨발로 더덕 캐던 비탈길 8)응칠이가 송이 따먹던 송림길 9)응오가 자기 논의 벼 훔치던 수아리길 10)산신각 가는 산신령길 11)도련님이 이쁜이와 만나던 수작길 12)맹꽁이 우는 덕만이길 13)근식이가 자기집 솥훔치던 한숨길 14)금병의숙 느티나무길 15)장인입에서 할아버지 소리나오던 데릴사위길 16)김유정이 코다리찌개먹던 주막길 로 되어 있다. 길은 각 코스별로 안내되며 작품속을 걷는 체험과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김유정문학촌에서는 매년 김유정 추모제, 청소년 문학축제, 실례마을 이야기잔치, 생가지붕이엉 엮어올리기와 문학제는 김유정 소설 속편쓰기, 작가와의 만남, 소설퀴즈, 뮤직페스티발, 민요부르기, 음악회 등이 정례화 되어 있다. 그리고 금병산 등산코스는 3시간 30분이면 족하다.

김유정문학촌은 작가의 생가와 기념전시관, 금병의숙, 실례마을길 등 마을 전체가 작품의 무대인 김유정 문학의 산실이며 생생한 역사적 체험장이 되고 있다.

(끝)

명제와 그 문고리 권력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 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남북조시대 남조 송(宋) 왕조에는 황제에 올랐다가 쫓겨난 사람이 둘이 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먼저 쫓겨난 황제를 전폐제(前廢帝)라고 하고, 뒤에 쫓겨난 사람을 후폐제(後廢帝)라고 부른다. 전폐제가 쫓겨 난 일은 앞에서 이미 거론 한 바처럼 명제(明帝)가 조카를 쫓아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사건이다.

조카를 쫓아낸 명분이야, 전폐제가 인륜(人倫)에 어긋난 정치를 하고, 혼란을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자기가 대신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니, 전에 잘 못한 것을 되돌아보고 제대로 정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대일터이다. 그러나 유욱(劉彧)의 아들도 명제가 죽은 뒤에 황제에 올랐다가 쫓겨났고 바로 후폐제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비록 정치를 잘하겠다고 조카를 죽이고 황제에 오른 명제 유욱은 그럴 위인이 못되었다. 그저 황제 노릇을 하라니까 하는 것일 뿐이었고, 그 높은 자리를 자기 수준에서 즐기려고만 하였다. 그 수준이 얼마나 저속한지는 그가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며 거기에 참석한 여인들을 발가벗겨 놓고 즐겼다. 황후가 옆에 있다가 눈살을 찌푸리니 화가 나서 황후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호통을 치는 위인이었다.

그러하니 정치를 제대로 할 리가 없다. 그래서 그가 황제가 된 다음에 채용한 인물도 바로 그 수준을 벗어나질 못하였다. 그래서 그가 채용한 관리는 자기 주변에서 자잘한 일을 하는 사람 밖에 없었다. 이러한 소인(小人)들이 별안간 높은 자리에 오르자 그 권한은 크고 해야 할 일은 모르니 할 수 있는 일이란 황궁의 문고리를 잡고 관직을 팔고 돈을 거두는 일 밖에 할 줄 몰랐다.

그 가운데 완전부(阮佃夫)라는 사람이 있었다. 완전부는 전폐제 시절에 하릴 없이 궁궐에 들어와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한 그가 전폐제를 내 쫓는 일에 가담하였고, 명제를 황제로 세우는 일을 하고 나서 권력을 잡은 것이다. 그 덕택으로 승승장구하여 관직은 끝없이 올라갔다. 유격(游擊)장군이 되어서는 더욱 방자하고 전횡하는 일을 일삼았다. 그래서 당시에 그에게 순응하면 복을 받고, 그의 뜻을 거스르면 화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가 뇌물을 받는데, 예컨대 비단 200필이 안 되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명부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그의 집은 여러 왕자들의 집보다 화려했고, 그 집에 사는 기녀와 악공들의 복장은 궁궐에 있는 사람들의 복장보다 화려했다. 노복이라도 그와 결탁하면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되었으며 그의 수레를 끄는 사람은 황궁을 호위하는 금위군 가운데 숙위(宿衛)의 책임을 진 호분(虎賁)중랑장이었다. 그의 말을 끌던 마부도 원외랑(員外郞) 벼슬을 하였다.

그가 천거하는 사람이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 재상이 이를 거부하려고 하였더니, 이 사람은 완전부가 천거한 사람이라고 하자 하는 수 없이 그래도 관직을 임명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러한 것이 바보 황제와 그 문고리 권력을 잡은 완전부의 안하무인의 모습이다.

이러한 사람에 의하여 움직이는 왕조가 오래 갈 수는 없는 법. 명제가 죽고 그 아들 유욱(劉昱)이 들어섰지만 질서가 없어진 왕조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 바보 황제 유욱은 죽었고, 그 아들 유욱(劉昱)은 황제에 올랐다 쫓겨나서 후폐제가 되었고, 그와 함께 완전부도 잡혀 죽는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권력을 잡은 것인 긴 것 같지만 명제는 겨우 7년 황제 노릇을 했고, 완전부 역시 10여년 권력을 잡았을 뿐이다. 그런데 유욱의 아들은 폐위가 되었고, 완전부는 비명에 죽었다. 그들의 긴 인생에서 그 권력을 잡은 그 10년을 영광스러운 한 페이지로 볼 수 있을까?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 ⑦

▣ 김 영 현 (광주시청 북구청 문화관광과장)

(지난호에 이어)

권율, 광주에서 여덟 장수를 얻다

권율이 모집한 의병은 이 지역에 머물고 있던 재향 전직관료에서부터 유생층 인사, 농민, 천민 등 다양했다.

이들이 권율 막하군사로 합류한 시기 또한 다양했다. 2차 근왕군 참전에서부터 참여한 사람, 용인 패전 뒤 광주에 돌아와 모집된 사람, 그런가하면 고경명의 금산패전 직후 그 의병의 일부가 예속되기도 했다. 또한 남원으로 군사를 이동한 뒤 광주 이외 타 군현에서 합류한 군사도 있었다.

여기서 권율 막하 장수 중 훗날 '광주(광산) 8장사'로 불리는 여덟 장수를 소개하고자 한다.

광주(광산)8장사

군량 운반의 책임을 맡은 고성후(高成厚, 1549~?)

광주 남구 압촌 마을 출신으로 자는 여관汝寬, 호는 죽촌竹村, 본관은 장흥이다. 목사 경조敬祖의 아들이자 경명의 조카이다. 1583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임진년에 익산군수로 나갔다.

고경명이 거의하자 군량을 실어 날랐고, 금산전투에서 패전하자 관군과 모은 군량을 가지고 순찰사 권율 진중으로 들어갔다. 군량운반 책임을 맡아 행주대첩이 가능토록 했다. 또 영남에 주둔한 명군의 진영씨 군량을 운송하여 주었고, 명장 여응종呂應鐘 등과 많은 시를 주고받는 등 우의가 두터웠다.

선무원종공신 2등에 녹훈되고 예조참의에 증직되었다. 저서로 『죽촌문집』이 있으며 유적으로 마을 입구에 황산사가 있다. 후손은 광주 남구 대촌 지석·압촌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

문무를 겸비한 선비로 이름 놀았던 김극추(金克秋, 1552~1610)

광주 서구 서창동 절골 마을 출신으로 자는 여직汝直, 호는 절봉節峯, 본관은 김해이다. 직제학을 지낸 일손馹孫의 후예이며 필弼의 아들이다. 용력이 뛰어나고 경사에 능통하여 문무를 겸한 선비로 이름이 높았다.

『호남절의록』에는 "동생 응추와 함께 금산싸움에 나아가 힘을 다해 싸워적을 많이 죽인 공으로 주부를 제수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충의사록』등은 보다 세밀하게 "임진왜란 직후 권율이 광주목사로 부임하자 의병을 모을때 그의 막하가 되어 이치전투에서 고을장정들을 인솔하여 영정곡永貞谷에 복병하였다가 큰 전과를 올려 훈련원 주부에 임명된 뒤, 이어 행주전투에 참전하여 끝까지 싸워 근공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병조좌랑 군기첨정, 경성판관, 해미현감, 영등군수 등의 벼슬을 지냈다. 선무원종공신 3등에 녹훈되고 좌승지로 증직되었다.

후손은 광주 광산구 우산등·장성군 진원면 용산리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 절골마을은 광주 남구 승학산 서북쪽에 위치해 있다. 마을 앞산은 백마산 이라 부른다.

전장에서 몸 수십 곳에 상처를 입은 김치원(金致遠, ?~?)

광주 광산구 신창동 풍영정 마을 출신이다. 자는 제화濟和, 호는 수진당守眞堂, 본관은 광산이다. 판교를 지낸 언거彦琚의 손자이며 주부 광부光符의 아들이다. 선조 때 음직으로 관직을 시작하였다.

권율이 광주목사로 있을 때 신임이 두터워 그의 천거로 훈련첨정을 제수받았다. 여러 번에 걸쳐 힘써 싸우다가 몸 수십 곳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로 인해 마침내 병을 얻었다. 후일 또 부름을 받았으나 나가지 못하자 사재를 털어 병기와 군량을 보급하였다. 그의 동생 치전致詮을 대신 권율 진중으로 보냈는데 진중에서 순절하였다.

후손은 광주 광신구 풍영정 마을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

군대를 해산한 전라도순찰사 이광을 책망한 박대수(朴大壽, 1533~1612)

광주 서구 서창동 절골 마을 출신으로 자는 인수仁叟, 본관은 충주이다. 좌찬성을 지낸 지흥智興의 증손자이다.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고경명과 힘을 합쳐 병력과 군량을 힘써 조달하였다. 전라도순찰사 이광이 군사를 거느리고 금강에 이르렀다가 잘못된 소문을 듣고 군사를 해산해 버리자 재종제 희수와 함께 달려가 크게 책망하니 이광은 "나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단지 박대수 등 두사람은 두렵다."하였다.

『금곡사지』에 권율 장군을 도와 이치전추에서 큰 공을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금산전투에서 패하고 권율 막하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도원수 권율 진중에서 종사하다가 만호萬戶가 되었다. 후손은 광주 서구 절골·덕진·매월마을 등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총재단회비
△권순택(부총재) 100만원
△권구민(부총재) 100만원

소 계 20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오진(서울, 대종원) 20만원
△권오극(안동, 복야공파) 20만원
△권영갑(수원, 대종원) 20만원
△권순팔(안양, 추밀공파) 20만원

소 계 80만원

▣ 대의원회비
△권종호(대전, 추밀공파) 10만원
△권희홍(대전, 대종원) 10만원
△권영학(예천, 경북) 20만원
△권병후(수원, 추밀공파) 10만원
△권정택(상주, 경북) 10만원
△권시현(광주, 대종원) 10만원

소 계 70만원

합 계 350만원

바로잡습니다

본지(2015년 1월 1일자 제475호) 1면 「추향제수성금」란에 호장공파종회를 부호장공파로, 신년회「광고」란에 乙美를 乙未로, 2면 「동정」란에 권해욱 헌정회사무총장 償자를 賞으로, 16일을 26일로, 7면 「만화」 갑오년을 을미년으로 각 바로잡습니다.